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양육과목 드디어 개강!

3월9일부터 7월2일까지 16주간의 일정으로 19과목이 개강
3월말까지 수강신청 및 참여가능



사진설명: 초등부 찬양팀의 찬양하는 모습

2004년 양육과목이 지난 3월9일(화)에 개강하였다. 7월2일까지 총 16주간 진행되는 양육과정은 총 19과목이며, 강사로는 주님의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맡게 되었다. 이번주에 시작하였으나 3월말까지는 수강신청 기간으로 계속해서 수강신청을 받으며 신청 즉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과목안내 및 장소는 주보삽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층 안내데스크 및 자원 봉사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새언약을 되새기며

지난주일 성찬예식

지난 주일(3월7일)에는 예배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성찬 예식이 있었다. 문동학담임 목사의 설교 후 찬송과 함께 시작된 성찬식은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서 복음으로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Small Group의 중요성을 깨달은 구역장세미나

3월5일(금) 7시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구역장 세미나가 열렸다.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교역자들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 문동학 담임목사는 small group(소집단)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 하였다. 큰모임인 교회와 작은 모임인 구역 모임간의 균형과, 부부사역과, 순수한 관계맺기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수요성경 공부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을 예정이다.

비전팀, 차세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전문적 지도자 양육을 논의

지난 3월 7일 오후 4시에 교회 4층 소회의실에서 비전팀이 모임을 가졌다. 비전팀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주님의교회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격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날은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독교텔레비전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역 책임자인 윤은성 목사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사역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풍부한 현장사역의 경험에서 나오는 제안을 통해 신선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특히 네트워킹 구축의 필요성과 4차원적 접근을 통한 청소년사역에 대한 의견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에 따라 주님의교회 비전팀에서 나름대로 제시한 '차세대의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전문적 지도자 양육'이라는 주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논의되었다. 또 비전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모든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 모임은 3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4층 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동현수 집사가 발제를 한다.

3층복도의 찬양의 메아리

초등부 울동팀 작은 제자

초등부의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작은 제자'팀은 한은희와 신재은교사의 인도로 아침 10시에서 11시15분까지, 그리고 12시50분에서 1시30분까지 주님의교회 3층의 복도에서 울동과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 3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구성된 이들은 작년 한 해, 초등부 찬양 인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열린 해바라기 콘서트와 크리스마스행사 등에 출연하여 귀여운 찬양과 울동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선생님들이 열광(미인)이고, 찬양이 참 좋아서 하고 있다는 아이들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 아직 3월 초라 추운 날씨인데도 복도 구석에 가방과 외투를 벗어놓고 소매로 추운 손을 감싸며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

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이 작은 제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한은희교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꼭 연습장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리더훈련 수료식

130명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다



2004년3월7일 주님의 교회에서는 앞으로 사역을 담당할 인재 130명이 6개월간의 리더훈련을 마치고 수료했다.

2003년 9월부터 시작하여 180여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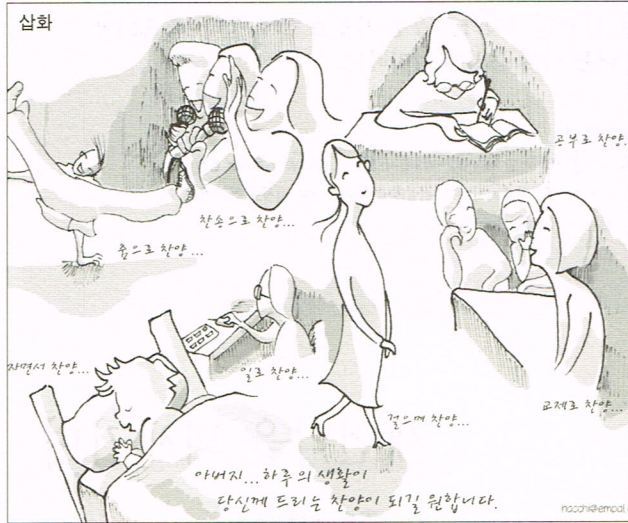
교우가, 제자훈련에 경험이 풍부한 김성관목사의 지도아래 리더훈련을 시작하여 50여명이 중도탈락하고 130명이 6개월간의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해냈다는 뿌듯함에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다. 공부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반등으로 나누어 교우들이 편리한날을 택하여 교육을 받았고, 그 동안 각 반에서 반장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한 김봉우집사 이상경권사 박영남집사 신정웅집사가 감사장을, 지유철집사 한득현집사 김현희집사 최재경집사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우수수료증을, 또한 1회도 결석을 하지 않은 67명의 교우들에게 개근상을 문동학 담임목사가 시상하였다. 담임 목사의 말씀에 따라 수료자들은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각기 각 처소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파도타기를 시작할 것이다.

마라톤대회 오늘오전 종합운동장

동아일보 주최 국제 마라톤 대회가 3월 14일(주일) 오전 8시부터 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하여 잠실종합경기장을 결승점으로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이용도로가 잠실대교를 지나 천호사거리를 거쳐서 올림픽공원을 한바퀴 돌아 가락 농수산물 시장과 수서경찰서, 학여울역을 거쳐 우성아파트 29동을 지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잠실종합경기장으로 진입한다.

이번 코스는 편도차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행코스의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여 교회로 오면 된다. 주로 송파구를 중심으로 코스가 설정되어 있어서 근처에 사는 교우들은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조하면 된다.

“포기할 수 없는 청소년 사역”



교사부흥회 강사 홍민기목사 강의

“청소년들은 존중받기 원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싶은 시기에 있는 이들은 어린이가 취급을 당하면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너무 쉽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청소년들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역자는 그 힘으로 사역하면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힘겹게 사역

하는 사역자, 재정 후원이나 기도 후원이 없는 사역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홍민기 목사는 큰 몸집에 꼭 맞춘 정장 이상으로 ‘열혈’(熱血)이라는 단어가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청소년 사역자이다.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술선수범 온몸 내던지기’, ‘아이들과 먹고 놀고 뒹굴며 편들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여 일찌감치 ‘탱크 목사’라는 별명을 추가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교회학교 교사란 모름지기 아이들의 형편을 때마다 헤아리고 연약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자이며, 그 영혼의 막막함을 온몸으로 체휼하고자 필연코 관계를 모든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아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시울이 더워지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열혈형이어야 마땅하다. 아이들은 그런 교사의 열정과 헌신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토록 소중한 교사들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2004년에는 저자가 대표로 섬겨온 미국의 ‘브리지임팩트사역원’(Bridge Impact Ministry)을 열어 한국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탱크목사 중고등부 혁명」(규장 간)이 있다. 미국 고든대학(Gordon College)에서 청소년 사역과 성서학(B.A.)을 복수 전공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Westminster Seminary)에서 목회학(M.Div.)을 전공했다. 청소년 코스타(Youth KOSTA)의 강사로 섬기고 있으며,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청소년 상담 교수로 전문적인 청소년 사역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서울 강남교회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신앙훈련과 더불어 수능을 대비하는 ‘고공방’(고등부 공부방)을 운영중이다.

농어촌선교부

올해 25개 농어촌 교회 지원확정

3월 7일 주일 3부 예배 후 농어촌 선교부는 부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봉사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03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는 16개 교회로 200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더 나아가 2004년의 예산에 의거해 25개 교회로 확장지원하기로 하고 전 부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정방법을 결정했다.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 요청한 교회는 24개 교회로서 이중 9개 교회를 선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누락된 농어촌교회는 현금지원이 아닌 노력봉사와 농어촌교회의 생산품을 집합, 우리교회에서 판매하여 주자는 방안이 나왔다. 이 방안의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정확한 계획에 의거해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농어촌교회의 학생들을 주님의교회 교육부와 연결하여 여름수련회에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목요모임

“다양한 영의 양식 여기서 충전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중예배실

매주 목요일이면 중예배실은 주님의교회 교인이 아닌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매주 새로운 강사가 초청되는데 3월 첫째주는 예수 전도단 대표인 문희곤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고려사를 집필한 김종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김종서의 칼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음 목요모임에는 예수전도단 최고의 강사라고 불리는 김용훈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내 맘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즐거워”

지난주(3월 7일) 유아부에서는 주일예배(11시 30분 시작) 이후 2부 순서로 새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부 친구들 모두 “내 맘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즐거워”라고 하며 작은 입술로 크게 고백하였고, 작은 손으로 울동을 따라하면서 아주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안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선교부 의료봉사

2004년 3월 7일 오후 1시 본교회 의료 선교부 서준규, 유승하, 김유호, 김학원, 김광일, 김사등 의사 5명과 김인숙, 김희옥, 김용남 집사 등 약사 3명, 그리고 심경화, 김수연 자매 등 간호사 2명이 약속된 안산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의 봉사를 위하여 교회를 출발하였다. 2시경 센터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불법체류자의 극심한 단속으로 그 일대가 썰렁한 상태여서 과연 몇명이나 진료를 받으러 올지 부원들로 하여금 걱정케 하였다. 마침, 봉사를 위하여 인천에서 Ho Sokunthea (캄보디아에서 인하대의대 대학원으로 유학온), 김부영 자매(인하대 의대생)가 반갑게 합류하였다.

드디어 3시가 되자, 중국인 근로자를 선두로 속속 몰려와 1시간 30분동안 30 여명의 중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인들이 진료를 받았고 또한 소아과 진료를 위하여 아동들을 데리고 온 여자분들도 계셨다. 과로로 인한 관절통, 피부염, 알레르기등의 환자가 많았으며 다음 봉사때는 피부과, 치과등 좀 더 다양한 의사 봉사자의 필요성을 느끼며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필수 양육과목 소개

언제나 들어도 가슴 떨리는 이름, 제자의 삶

이번 학기에 모든 성도가 거쳐 가야 할 필수 양육 과목이 개설되었다.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 과목은 올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표어에 맞아 더욱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제자의 삶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느끼는 과목이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는다고 이번에 개설된 새 과목을 새로 오신 세분의 목사님이 맡았다. 주일 오후 1시 30분은 정영환 목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은 이 호 목사, 오후 7시 30분은 우동윤 목사가 각각 담당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다.

“Challengers”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4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주님의교회 교사자격을 수여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3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인영전도사 016-744-4663)

3/20(토)	3/21(주일)	3/27(토)	3/28(주일)
challenge 1 pm5-6:30	challenge 3 pm3:30-5	challenge 5 pm5-6:30	challenge 7 pm3:30-5
MEBIG 1: 이기동 전도사(명성교회)	교회학교 진단과 도약 모색 김현령 전도사(주님의교회)	AWANA 1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AWANA 3 이종국 목사(어와나코리아)
challenge 2 pm7-8:30	challenge 4 pm5:30-7	challenge 6 pm7-8:30	challenge 8 pm5:30-7
MEBIG 2 이기동 전도사(명성교회)	교사 부흥회 1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AWANA 2 이종국 목사 (어와나코리아)	교사 부흥회 2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야전군 최초로 “아버지 학교”를 열다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대령 박진수 집사(군선교부, 중등부교사)는 야전군 최초로 올해 1월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며 놀라운 열매들을 목격하였다. 박진수 집사는 아버지학교를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20세의 부사관들 가운데 일부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창에 가고, 지나친 술문화, 가정불화, 아내의 우울증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을 면담하는 과정에 저는 성장과정에서 아버지

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자녀를 때리거나 욕하고, 공부 못한다고 욕박지르고, 형을 편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아버지와 진실한 대화 한 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던 중 두란노에서 운영하고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하는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고 승리부대의 결혼한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색이 짙은 것이고, 참가비가 있기에 문제가 될 것을 각

고백을 나눌 수 있었다. 박태진 집사님의 건강강좌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핵심강의를 들었다. 이어진 빙고 게임은 최창섭 장로님이 진행해 주셨다. 함께한 모든 성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은 빙고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환호와 탄식이 이어졌다. 살롬 찬양대의 하루 수련회는 성가대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찬양대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살롬찬양대는 4월 9일 성금요일 음악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담부퇴길

상담부 일일수련회가 3월 10일(수) 강원도 원주에 있는 목민교육원에서 있었다. 정영숙부장을 비롯해서 7명이 참석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영숙부장은 이렇게 고백한다. “참석한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역중심의 수련회가 아니라, 상담부원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교제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동성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맺게 될 것이다.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학부모들 또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제2여선교회, 루디아의 집 섬김

제2여선교회가 3월 월례회에서 매월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여 섬기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지난 11일 수요일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했다. “루디아의 집”은 60세 이상 되신 여성 시각 장애인 공동체인데, 매달 제2여선교회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 후 함께 산책과 간단한 운동, 목욕봉사, 말벗 봉사 등으로 섬기게 된다.

번제의 정신으로 드러지는 찬양

시온찬양대 수련회

지난 2월 29(일) ~ 3월 1일(월) 이틀동안 남양주시 소재 진광전원교회에서 시온찬양대 수련회가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쾌적한 전원풍경 속에서 친교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 알차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호목사님의 말씀선포로 개회예배가 드려졌고 저녁 식사 후에는 조별 모임을 통해 각자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공유하였으며 레크리에이션 중에는 이종석집사의 손녀 탄생소식이 전해져 모두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다.

둘째날은 번제의 정신으로 드러지는 찬양과 온 맘으로 ‘쏟아내는’ 찬양을 강조하여 시온찬양대가 정진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고회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소 열정을 쏟아내는 강의를 진행하여 듣는 이들은 깊은 감동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살롬찬양대 수련회

찬양대원이 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하트(heart)

살롬찬양대는 2004년 2월 29일 15시부터 21시 30분까지 찬양대실에서 하루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살롬찬양대 수련회는 이호 목사님의 찬양대원의 자질? 주제강연과 이동훈 지휘자 선생님의 특강1? 아름다운 소리의 조건?, 특강2? 찬양대원의 바른마음?으로 그동안 연습시간에 강조하셨던 아름다운 소리의 조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식사 후 계속되어진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통하여 장경희 권사님과 문창복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모집 “우리는 희망을 찬다!”

지난 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는 제2기 유소년축구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축구클럽을 신청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과 또 이들을 지도할 코칭스태프 한 자리에 모여 힘찬출발은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전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씨가 참석해 축구클럽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모집대상 :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훈련기간 : 2004. 3. 14 - 6. 27

회 비 : 7만원(보험료포함)

(매 주일, 총 17주, 우천시 실내 교육)

오전 11시 - 12시 30분 (중등부),

오후 1시 30분 - 3시 (초등부)

강사진 : 이용수 집사(유소년축구클럽 부장 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조남윤 성도(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신재흠 성도(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외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회비 : 7만원 (인상된 회비 내역 : 추가된 3주 프로그램 1만원 + 보험료 1만원)

접수방법 :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비와 함께 제출. (지원자 과다초과시 추첨)



유소년 축구 클럽

대망의 2기 문을 열다

“우리는 희망을 찬다”

2004년 3월 7일 주일 오후1시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제2기유소년 축구 클럽 발단식이 김현령 전도사 사회로 열렸다. 유소년 축구단은 우리교회 중등부 및 아동부 유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심을 기르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려는 취지로 교육부 주관하에 발단 되었다. 축구단이 모이는 시간은 중등부는 매주일 11시 부터 12시 30분, 아동부는 매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이며 연습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다. 또한 매학기 두번 미사리 천연 축구장에서 실전연습도 있을 예정이다. 2002 월드컵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대 체육과 교수인 이용수 집사가 부장을 맡고 있으며 유소년 축구단 코치님 교사들도 전 LG축구단원이었거나 세종대 체육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소년 축구단은 우리교회 유소년들이 축구를 전문인들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소식

1. 주님의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의 정착 과정

- 1) 새가족이 등록대(1층 로비)에서 등록카드를 기록 제출한다.
- 2) 주중에 약속하여 등록한 다음주에 새가족환영실에서 교구담당 교역자 및 구역장, 새가족도우미(바나바)와의 만남을 갖는다.
- 3) 새가족도우미(바나바)는 새가족에게 매주 구역원을 비롯한 가까운 교우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을 이루도록 돕는다.
- 4) 새가족이 주일2,3부예배 후에 있을 새가족 성경공부 5주과정에 참여한다.
- 5) 새가족이 가능한 때에 교구교역자의 심방을 받는다.
- 6) 새가족도우미와 구역장은 적절한 시기에 새가족을 구역모임으로 초청한다.
- 7) 2-3개월마다 열리는 새가족환영행사를 통해 주님의교회 가족이 됨을 함께 축하한다.
- 8) 구역정착과 함께 200양육과정 혹은 사역에 참여한다.

2. 제3기 중보기도학교 개강

제3기 중보기도학교가 이번주 목요일(18일) 오전 10시 30분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개강합니다. 성도의 특권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제1기, 제2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70여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서 30여명은 지금도 교회 중보기도사역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 중보기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모두를 중보기도학교에 초청합니다.

119 사역팀

난곡 꿈나무 공부방에 부엌공사

119사역팀이 서울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난곡에 있는 꿈나무 공부방의 부엌과 식당을 지어주는 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새로 이전한 공부방을 수리하는데 119사역팀은 결식아동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로 구성된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부엌공간을 수리하고 공사하는 일을 몸으로 하는 봉사자와 10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하기로 시작했다. 한정웅 집사(부장, 016-706-2331)과 김용남 집사(019-9027-8534)는 수시로 난곡 공부방 현장을 방문하며 자세한 상황을 119사역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ordCops>에 올리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주방 봉사를 하실 분이나 자원교사로 봉사할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딸아이를 피아노 교사로 신청한 집사님도 계시다.

북한선교사역보고 모임

이종환 목사로부터 북한선교사역 보고를 듣다

지난 2월 29일 오후 1시에 미시민권자로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직접 가서 쌀과 의약품 등을 제공하며 북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한 이종환 목사의 북한선교사역 보고가 있었다. 준비 해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북한 지역으로 공급되는 선교구호물자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목사의 보고를 통해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구호물자와 의약품을 갈망하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운 친구를 찾습니다.

친구가 그리운 세대! 50대의 남성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 있다. 제3남선교회! 2004년에는 회장 이열집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교제를 통한 믿음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교회 내의 25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서 네트워킹할 준비를 하고 있다. 봉사와 전도활동 이전에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추구하며 한해를 연다. 특히, 새로 등록한 형제들과 아직 제직부서에 봉사하지 않으면서 서먹서먹한 가운데 교회 다니는 형제들을 찾고 있다. 같은 연령층이면서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대화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탈피하여 서로 친근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앞으로 주보, 함줄함줄을 통해 모임에 대한 광고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 한해는 가상공간을 통해 만남의 공간과 형태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회장의 E-mail은 항상 열려있다고 한다. rheeyeol@hotmail.com 으로 선교회소식이 알려질 것이다.

새롭게 시작된 4부예배

지난주일부터 4부예배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 찬양 인도에는 송광수 형제의 뒤를 이어 유상렬 전도사가 새롭게 마이크를 잡았다. 찬양 전문 사역자인 유상렬 전도사의 인도로 4부예배 찬양시간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청년 사역자로 섬기는 윤은성목사는 '시선고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로써 4부예배가 이전보다 더욱 청년예배의 성격이 강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청년만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열린 4부예배가 될 것이다.

양육과목 소개

예전사를 아십니까?

예전사는 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전투하는 병

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예전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예전사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 중심에 한 사람을 살리고픈 열정이 있는가?', '정말 당신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올해에는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소서!

중등부 교사들은 지난 2월 28일에 박대길 부장 집사 집에서 올해 첫 MT를 가졌다. 중등부는 여름 수련회 장소도 이미 답사를 끝내고 가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중등부 교사로 수고하는 박진수 집사의 소개로 강원도 화천에 수련회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아주 좋은 장소를 올 여름 수련회 장소로 이미 결정하고 여름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일에는 170명의 중등부 친구들(교사 35명, 총 205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예배실이 비좁아 보일 정도였다. 이번 주일(14일)에는 1~2월의 청소년 매일 성경을 정리할 기획으로 1/4분기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한다. 방식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야구게임 형식을 빌어 가질 계획이며, 6월에 있을 2/4분기 성경퀴즈대회는 비디오와 영상을 이용한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4월 11일 부활주일에는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을 다과와 선물로 환영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찬양과 기악등 달란트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중등부는 계속 새로워질 것이다. 올해에는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힘찬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